

## 대체 불가능한 길 Non Fungible Tunnel

by. 임다울 (미술가)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자산을 말한다.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이란 거래의 참여 인원 모두에게 거래정보를 저장-전송하는 기술로, 소유권 변동 이력과 거래의 정보 모두를 추적 가능하며, 모든 거래 참여자의 데이터를 위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보안의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고: 지금부터 쓰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 경험, 생각들은 애플리케이션 “클럽하우스”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NFT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시각예술가의 NFT 작품(이하 NFT ART)에 한정하여 수기 형식으로 서술하겠다. 클럽하우스의 운영방침은 내부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취나 녹화를 통해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으므로, 나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정보와 이름을 노출하지 않은 채 글을 작성할 생각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얼마간 신뢰할 수 없는 “인상 비평”의 한계 안에 머문다.

지금은 어딘가 어중간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처음 클럽하우스를 접했을 때 우후죽순 생겨난 “미술 관련 대화방”들은 사뭇 뜨거운 열기 속에 있었다. 한 편에서 대화의 참여자들은 이 매체가 실시간 다중 발화를 의도하면서도 모더레이터를 통해 최소한의 통제를 구현한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그런 모더레이터의 존재를 클럽하우스가 내포한 위계적 구조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그렇게 ‘모던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기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마 모더레이터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클럽하우스의 폐쇄적 초대장 문화와 함께하는, 보다 동시대 노동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클럽하우스의 기능이나 풍토, 유행 등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 말해왔음으므로,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다. 아무튼 나는 어딘가 음흉한 구석이 있는 사람인지라, 여러 대화방을 돌아다니며 어디서 공개적으로는 말 못한 ‘썰’을 주워듣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내가 클럽하우스에서 팔로우한 미술 관련자들 중에는 특히 컬렉터들이 다수였다. 이것은 의도적인 부분인데, 나는 ‘미술 현장’의 구성요소 중 컬렉터나 갤러리스트들이 받는 독특한 혐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예술대학이 뛰어난 큐레이터와 뛰어난 미술이론가, 뛰어난 예술가를 연구하는 일에 열을 올리는데 비해 뛰어난 컬렉터와 뛰어난 갤러리스트에 (일부러) 무관심하면서 생겨난 폐허가 있다. 나는 늘 그러한 물이해가 만들어낸 미술현장의 공동(空洞)이 신경 쓰인다. 갤러리스트의 소명의식이란, 또는 컬렉터의 소명의식이란, 이상향 그래프에 맞추어진 지속적 수익보장에 있을까?

물론 탁월함이나 뛰어남에 대한 몰두가 예술현장을 빠르게 산화시킨다는 원론적 지적에 공감하지만, 지금의 이야기는 의지의 측면을 벗어나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나의 협소한 견해 안에서, 컬렉터나 갤러리스트가 예술을 함부로 여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갤러리스트나 컬렉터 집단보다는 아카데미의 일원일 확률이 높다.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중요성 하나만으로는 세계를 가늠해 볼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자 한다면 결국 이 세계에는 중요하다 여기는 것만이 남겨질 테니까. 예술가 스스로가 생계의 중요함을 예술의 모든 것으로 환원하여 바라보지 않듯, 컬렉터와 갤러리스트들도 수익의 중요성만을 예술의 모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예술 생산자들이 소비자중심의 기업가 마인드를 탑재하는 방향도 난처한 일이겠지만, 사실 이런 쪽은 보통 이 일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Beeple(본명 마이크 윈켈만, Mike Winkelmann, 1982-)의 **<매일: 첫 5000일(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의 경매소식은 상대적으로 젊은 컬렉터들과 NFT 예술가들이 많은 클럽하우스에서 특히나 화제였다. \*1 실시간으로 Beeple의 경매를 지켜본 이들은 경매의 막바지에 치솟는 작품가를 두고 자신이 목격한 '역사'를 강변하거나, Beeple의 인터뷰를 인용했고, 실제로 Beeple은 클럽하우스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누군가는 전통적 예술품 경매회사인 크리스티가 경매를 주도했다는 사실과, 경매 가격을 상승시킨 주요 경쟁자가 Tron이라는 가상자산 기업의 창립자 저스틴 선(Justin Sun, 1990-)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NFT ART의 저작권 문제 또한 여러 사람들이 언급했는데, NFT 예술가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흐릿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혼선이 있었다. 그러니까 NFT ART를 구매했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구매했다는 뜻일까? 물론 프로젝터를 통해서 공간에 이미지를 투사하거나 모니터에 작품을 켜두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다. 하지만 이미지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언어는 끊임없이 (그것도 동질하게) 복제 가능한 것이다.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전제 하에, 내가 구매한 작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대체 누가?'라는 질문과 연동하며 NFT ART의 거래 대상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

이미 오랫동안 다수의 미술 작품들을 보고 경험해온 사람들은,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NFT ART가 소유권 보증을 그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NFT가 보증하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 '사건 증명'은 매번 거래에 참여한/참여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송되고 저장되며, 우리는 이를 통해 비로소 작품의 진위 논란과 위조/변조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 모든 과정은 저작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구매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품을 변경,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하다. 그렇다면 이 거래의 방식이 유통하는 사건 증명의 풍경은 수많은 NFT 예술가들의 이야기처럼 화랑 중심의 미술계를 변혁할 데우스 엑스

마키나일까? Beeple의 경매 이후에 많은 반응이 있었지만, 기억에 남는 반응은 클럽하우스에 모여든 미국 NFT 예술가들의 것이었다. 일부는 밝은 목소리로 Beeple이 화랑 중심의 미술시장에 혁명을 촉발했으며, NFT ART의 독자적 시장이 활기를 얻은 지금이야말로 미술의 서부개척시대라 비유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순진한 갤러리는 없겠지만, 이들이 미국의 서부개척시대를 작금에 비유하는 태도는 매우 놀라웠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는데, 아마 이제부터는 NFT ART의 자생적 터전이 거대 갤러리와 '기획 상품'의 체계 아래에서 '개척'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의 NFT 예술가들의 이야기는, NFT ART에 대해 조금 다른 견해를 보여주었다. 한국의 미술가들 중 이미 오랫동안 NFT ART를 지속하고 있던 무리들은, 국외의 NFT 예술가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이들 대다수는 이미 화랑을 통한 전통적 작품 판매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본인이 생각하기로) 미술계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NFT ART를 채택하고 있노라 이야기했다. Beeple과 조던 울프슨(Jordan Wolfson, 1980-)이 데이비드 즈위너(David Zwirner)와 같은 메가 갤러리의 주최 하에 NFT를 다루는 좌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앞서 이야기를 나눈 작가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NFT ART와 관련한 또 다른 사례로, 블록체인 기업 인젝티브 프로토콜(Injective Protocol)은 뱅크시(Banksy)의 실물 작품 <멍청이(Morons)>를 불태우고, NFT로 민팅(디지털 작품을 대체불가능 토큰화 하는 일)해둔 작품 이미지를 판매했다. 실물은 사라지고, 복제가 실물을 대체하는 상황을 연출(하려고)한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쇼크 밸류를 통한 파격이자 실험, 일종의 선언문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저작권 침해 행위임에도 뱅크시의 별다른 반응이 없다는 점에서, 이 행위는 미술계를 토대로 벌어지는 일종의 게임(또는 스포츠)으로 탈바꿈한다. 뱅크시가 자신의 철학에 의해서 그들을 용인한 것이든, 애초에 이 모든 과정이 뱅크시와의 '물밑 협상'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든, 아무튼 이 게임의 시나리오에는 승리 밖에 없는 것이다. 자, 무언가 통과하고 놀라운 걸 봤으니 추가금을 낼 차례이다.

어쩌면 조금은 의심하는 시점에서 이 글을 적었지만, 수기가 끝나갈 때쯤 드는 생각이 'NFT는 사기다!'와 같은 원천봉쇄의 결론이라면, 내 글의 부족함 때문임을 밝히며 몇 가지 사족을 덧붙이고자 한다. 내가 NFT ART에 관련해 컬렉터와 갤러리, 그리고 생산자들의 관점에서 이야기의 일부를 수집-열거했지만, 여기에 미술관과 큐레이터의 이야기는 부재한다. 물론 Beeple이 \*생존 작가 중 3위의 작품가격 경신!!!\* 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이후로, 클럽하우스 바깥에서도 큐레이터와 미술관 관계자들이 NFT ART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그게 대체 뭐냐.', 또는 '그런 공허한 걸 왜 하나.' 같은 의문문에서부터 NFT ART를 희화화하는 제리 살츠(Jerry Saltz, 1950-)식의

농담을 던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말이다. NFT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수적으로 재현하는 기술일 수 있다. Beeple부터가 NFT ART의 거품을 우려할 정도이니, 자본주의의 광기는 체제를 관통하며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자 힘쓰는 예술가들에게조차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통로로 느껴질 정도이다. 또한 지구의 생태와 환경을 생각해보아도 이 기술의 미개함은 문제적이다. 그렇지만 내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부분은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나 드문 일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의 문제'라는 통념은 다수의 의도적 회피로도 충분한 도움을 받아 이곳에 또 다른 공동(空洞)을 양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해보자면, NFT ART가 미술관 수장고에 들어가는 순간을 상상해보고 싶다. 미술관이 수장고를 개방하여 NFT ART를 선보인다는 것은 어떤 광경을 만들어낼까. 온라인을 통해 흠뻑려질 이 공공의 이미지는, 민중미술이 꿈꿨던 판화의 가능성과 어디에서 함께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적대할까? NFT ART가 공공성을 표방하는 미술관에 진입하고, 수집 행위가 보편화하여 사람들/시민들에게 공개될 때, 이 이미지들은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1966-)이 옹호하는 빈곤한 이미지들과는 어떻게 공존 가능할까? 이미 NFT가 미술의 유통구조 한편에 정착해버린 지금, 내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들이다.

\*1 참고: 트위터와 클럽하우스는 대부분의 NFT 예술가들이 주된 소통매체로 사용한다. 트위터의 경우 빠른 호흡의 짧은 메시지 전달 방식과 블록체인 기술과의 친화성 때문에 더욱 좋은 반응을 얻었다. Beeple의 경매 외에도 트위터의 CEO 잭 도시(Jack Patrick Dorsey, 1976-)가 자신의 첫 트윗을 NFT 경매로 판매했고,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은 NFT 아티스트들에 의해 한 발 늦은 매체 취급을 받기도 했다.